

3 » 총동연 – 한기연 고소 논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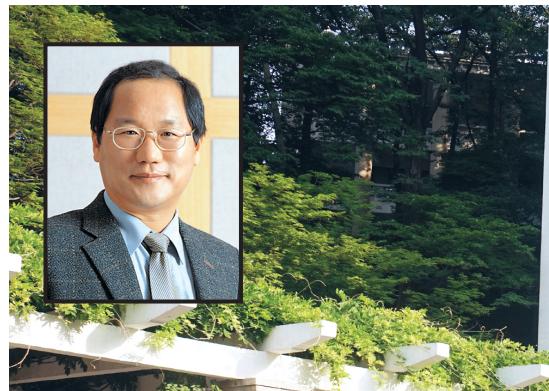


5 » 국제캠퍼스 생협 건립, 장애물은?



학사다이어리 – 2014-2 행복기숙사 입사 신청 안내

- 신청자격
 - 가. 재학생 및 2014-2학기 복학예정자로서 이전학기 성적 평점이 3.00이상인 자 (복학예정자는 최종학기 성적기준)
 - 나. 친권자(부모)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가 서울이 아닌 자(경인지역 신청가능)
- 접수기간 : 6월 2일(월)~6월 13일(금)까지(도착분에 한함)
- 합격안내 : 7월 중순경 본교 홈페이지 명단 게재 및 이메일 통보



경희가 기억할 그 이름

체장암으로 투병 중이던 김종규(지리학) 교수가 지난달 28일 별세했다. 김 교수는 1989년 우리학교 지리학과 교수로 임용돼 사회교육원장, 학생지원처장, 생활협동조합 이사장을 역임하고 중앙박물관장, 경희기록관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발인이 진행된 5월 30일 오전 7시에는 고인이 평생을 봉직한 이과대학 앞 마당에서 영결식이 거행됐다

Newsmaker

대학농구 인터넷 방송 'Sportsnext' 기획자
이재선(체육학 2009) 군



“즐거운 일이 나의 꿈”

이진우 기자 urusa99@khu.ac.kr

‘경희대하면 떠오르는 것’ 하면 역시 농구를 빼놓을 수 없다. 신인 드래프트 1,2,3 지명을 훙쓸었던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 우리학교 농구부 사자 군단의 기세도 무섭다. 이를 계기로 농구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경기장뿐만 아니라 페이스북에서도 우리학교 농구 팬들의 눈이 즐겁다. 바로 농구를 소재로 한 영상 컨텐츠를 제작해 게시하는 페이스북 페이지 'Sportsnext' 덕분이다. 이 페이지에는 토크쇼 형식으로 대학 농구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넥스트토크(넥톡)'이 매주 업데이트된다.

농구를 처음 보는 여성 팬부터 골수팬까지 아우르는 탄탄한 구성 덕분일까. 페이지의 '좋아요' 수도 2000을 넘고, 매회 평균 13,000명이 넘는 사람이 넥톡을 본다. 우리학교 선수들 뿐만 아니라 타 대학 선수들까지 출연시키는 섭외력도 인기의 비결이다.

‘Sportsnext’를 처음 기획한 사람은 우리학교 이재선(체육학 2009) 군이다. 이 군이 'Sports next'를 기획하게 된 계기는 대학농구를 학생들에게 알리고 싶어서였다. 그는 “우리학교 학생들이 우리 선수들을 몰라서는 안 되잖아요. 농구와 관련된 영상을 만들어서 SNS에 올리면 선수들을 알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작하게 됐어요”라고 기획 동기를 밝혔다.

그 시작은 'Sports next'의 전신인 'KHU-Next'를 지난해 4월에 개설하고부터였다. 'KHU-Next'는 농구, 축구, 야구 체조

등 우리학교 스포츠 전반의 정보를 전해주는 페이지였다. 페이지 이름에 'next'를 넣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스티브 잡스를 좋아해온 그는 “스티브 잡스가 애플사에 다니다가 잘린 적이 한번 있어요. 그 때 나와서 차린 회사가 'NeXT'인데 거기서 영감을 얻었죠”라고 말했다. 그런데 그가 'next'라는 단어를 쓰는 데에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었다. “'Next'는 '다음'이라는 뜻이잖아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제 영상을 본 '다음에' 더 행복해졌으면 한다는 바람을 담아서 이름을 지었어요.”

“우리학교 학생들이 우리 선수들을 몰라서는 안 되잖아요. 농구와 관련된 영상을 만들어서 SNS에 올리면 선수들을 알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재점화된 중핵교과 ‘계열 분리’ 논쟁

후마 계열별 강의 논란

김주환 기자 kjh99@khu.ac.kr
이재은 기자 jenny95@khu.ac.kr
최승욱 기자 dotori14@khu.ac.kr

후마니타스칼리지(후마) 중핵교과의 계열별 강의 개설에 대한 논쟁이 올해도 계속되고 있다. 또한 ‘인간의 가치 탐색’과 ‘우리가 사는 세계’ 두 과목으로 나뉘어진 중핵교과 커리큘럼이 지나치게 인문·사회학에 치우쳐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가운데 자연과학 위주의 ‘빅뱅에서 인간까지’가 신설된다.

서울캠퍸스 총학생회(총학)와 후마 대학생위원회는 지난달 말 대자보를 통해 ‘중핵교과 계열별 강의 시범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듣겠다’며 의견 수렴을 위

“이공계·예체능계 학생 불리, 계열별 강의·점대평가 실시해야”

-대학생위원회

“후마 특성상 계열분리 불가, 강의 방법론적으로 해결해야”

-후마

한 ‘도시락 수다’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해당 행사는 지난달 29일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참가율이 저조해 오늘(2일)로 미뤄졌다. 후마 대학생위원회 장현호(언론정보학 2010) 회장은 “자유롭게 학생들의 발언을 듣고, 대안을 모색해 이를 후마와 대학본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후마의 수업 내용과 평가 방식에 대한 논란은 지난 2011년 첫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문제다. 2011년 당시 총학과 후마 대

이는 이공·예술계열 학생들이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적이 불리하다는 ‘형평성’ 논란을 낳았고, 이러한 여론을 의식해 지난해 10월 후마 대학생위원회는 후마 교수와 학생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제안했다. 쟁점은 크게 계열별 수업 운영과 현행 평가 방식인 상대평가 두 가지였다.

당시 후마 측은 대학생위원회의 계열별 수업 운영에 대해 “중핵교과는 지난 2012년 1학기에 예체능 계열 학생들을 대상으로 3개 분반을 운영한 경험이 있으나 일반 수업에 비해 분반에 참여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낮아 다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답했다.

▶3면으로 이어짐

학생위원회는 후마 교재의 분량이 너무 많다면 ‘중핵교과 분량 줄이기’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에 따라 학생 의견 수렴과 ‘교수간 워크숍’을 통해 내부적으로 해결방안을 논의해 교재 내용과 분량이 해를 거치며 지속적으로 변동돼왔다(대학주보 제1513호 3면 2012. 04. 09)

그러나 철학·역사·문학·사회과학 등 인문학적 내용이 주가 되는 중핵교과의 방향은 그대로 유지됐다.

사람들의 원성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왕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앙의 원인으로 지목된 선왕 살해자를 찾기 위해 온갖 수사력과 강제력을 동원했다. 그럼에도 도무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었던 그 때,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왕국을 찾아온 한 노인이 있었다. 앞 봇 보는 백발의 이 장님은 왕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지혜가 아무 쓸모없는 곳에서 지혜를 갖는다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고대 그리스의 비극작품 《오이디푸스 왕》의 시작부분이다. 이 작품을 쓴 소포클레스는 아이스퀼

지식은 양날의 칼,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

후마니타스칼리지 – 대학주보 공동기획, 고전의 사계 ⑬

이은정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세상에서 으뜸가는 지혜로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자가 있었다. 그 자는 젊고 똑똑했으며 타인의 불행을 외면하지 않는 정의로움도 지니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칭송하고 따르면서 왕으로 추대했고 여러 해 전 비명횡사한 선왕의 미망인도 슬픔을 거두고 흔쾌히 청혼을 받아들였다. 왕은 나리를 보호하고 명예롭게 하는데 힘을 아

끼지 않았으며 왕비와의 금술도 좋아서 슬하에 여러 자식들을 두었다. 그러나 행복한 시절도 잠시 일 뿐, 다시 나라에 재앙이 찾아와



《오이디푸스 왕》은 고전작품의 대표적인 사례로 2,500여년의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은 철학자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로스, 에우리피데스와 더불어 고대 그리스의 대표적인 3대 비극작가로 꼽힌다. 고전의 반열에 올라가는 작품들은 자신이 속한 시대와 장소에 국한되지 않는 통찰력과 함께 읽는 사람만의 새로운 발견을 가능하게 하는 특징을 갖는다.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은 이런 고전작품의 대표적인 사례로 2,500여년의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은 철학자들의 사랑을 받아왔으며, 새로운 변주의 모태가 돼왔다.

▶7면으로 이어짐

알림

전문가 칼럼 연재 종료

취업의 속살 ④ – 올바른 취업 준비 방법
국제캠퍼스 취업진로지원처 윤재훈 계장

▶7면



이번 호가 2014학년도 1학기 종간호입니다

대학주보는 방학중에도
온라인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media.khu.ac.kr/khunews



시선

사설

방학 전, 구성원 대상의 '알림'이 필요하다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더위와 함께 이번 학기도 종반을 맞이하고 있다. 지방 선거와 현총일로 이어지는 연휴를 감안하면 1학기는 약 2주 정도의 시간만 남아있는 셈이다. 구성원의 다수가 캠퍼스에 머무르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방학이면 대다수의 학생은 학교를 떠나고, 교수 역시 연구와 대외활동 등으로 자리를 비운다.

따라서 남은 시간 동안 이번 학기에 족발된 문제를 매듭짓지 못할 경우, 2학기 개강까지 약 3개월의 시간동안 구성원 사이에서 학내 문제가 논의될 수 없는 공백기가 찾아올 수 있다. 지난해 재정을 매개로 족발된 갈등이 겨울방학 동안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끝에 개강을 목전에 두고 터진 학생회와 대학 간의 갈등을 생각하면 이같은 우려는 근거 없는 것이 아니다.

특히 지난해 2학기 말부터 족발된 우리학교의 재정문제는 겨울방학을 지나고 1학기가 종료되는 이 시점까지 구체적인 팩트에 기반한 이렇다 할 중간 보고 조차 없는 형편이다. '얼마를 확충했다는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 아닌 현재 상

황이 어떠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구성원이 알고 싶어하는 바의 핵심이다.

지난번 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조인원 총장이 밝힌 바와 같이 이번 달 초까지 대학 행·재정발전계획안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구성원 대표 간의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구성원 대표 사이에서 '그들만의 논의'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학생들은 국가장학 제2유형을 비롯한 장학금 지금과 늘어난 대형 강의, 학내 복사비 지원 중단을 통해 생활에서 문제를 느끼고 있을 뿐, 제대로 된 해명은 얻지 못하고 있다.

일선 부서의 입장도 답답해하기는 마찬가지다. 현재 대폭 삭감된 부서 예산은 오는 2학기 추경예산을 통해 일정 부분 복원해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대학본부는 거듭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얼마의 예산을 어떤 사업에 지원할지는 아무런 답이 없다. 장기적인 사업과 목표를 두루 조망해야 하는 일선 부서로서는 구체적이지 않은 추경예산에만 목매야 하는 상태다. 결국 전반적인 행정서비스 질의 악화와 사업의 내실화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이런 문제들을 더 크게 우려하는 이유는 오는 2학기에 굵직한 학내 구성원 대표들의 선출이 예정돼 있는 탓이다. 총장과 교수의회 의장, 노동조합 위원장, 총학생회까지 구성원 대표에 대한 투표와 선출 속에서 후보들은 치열한 경쟁을 치를 수밖에 없다. 이런 경쟁은 선거의 속성을 감안할 때 후보 간 '선명성 경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갖가지 문제들이 더 증폭될 수 밖에 없는 조건을 지니고 있다.

현재와 같은 뿐만 아니라 학교운영이라면, 이런 위기의식에 기름을 끊는 꼴이다. 지난 2학기 족발됐던 학내 갈등을 반복하며, 소통부족 논란과 대표에 대한 신뢰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구성원이 의문을 풀고 있는 주요 사안에 대한 사실과 최소한의 로드맵을 발표한다면 이번 학기가 마무리되기 전까지의 시점이 가장 적기일 것이다. 그리고 그 발표의 형식은 전체 구성원을 상대로 한 형식이 갖춰진 발표여야 할 것이다. 내용 역시 '잘 해보겠다'는 수준을 넘어 '정확한 숫자'를 근거로 한 팩트가 주가 돼야 할 것이다. 재정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얼마의 예산을 확보했는가. 올해의 기부금 수입은 어느 정도인가. 올해 착공을 목표로 하는 SPACE 21 사업은 실제로 가능한가. 일선부서의 어떤 사업에 어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인가. 장기적인 대학구조개혁은 어떤 기조 안에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대표간의 논의를 넘어 구성원 전체와 공유해야 한다.

'좋은 결과는 좋은 계획을 통해 예비된다'는 격언처럼, 대학 행·재정발전계획안은 분명 우리학교 전반의 혁신을 위해 필요한 준비단계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어디까지나 계획일 뿐, 실제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며 수정해나가는 '실천'의 과정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그 실천이 없는 계획은 공허한 울림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이 앞서 열거한 문제들은 지난한 시간동안 논의되고 공론화할 기회를 많이 가졌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계속되는 계획과 수정이 아닌, 실천과 실질적인 행동이다. 이를 위한 시작의 단계로 그동안 논의를 통해 합의된 최소한의 결과라도 공개해 구성원에게 생각할 기회를 줘야 한다. 더 이상 말의 성찬에 그치는 '계획'을 경계해야 할 때다.

금요일, 편집실 문을 닫으며

세시봉

김주환
(편집장)



'3학년 1학기'. 종합정보시스템에 들어갈 때마다 화면 상단에 떠 있는 저 말은 요즘 필자를 가슴 칠렁하게 만든다. 그 숫자는 말한다. 벌써 대학생 활의 절반이 지났구나. 빨리 군대도 가고, 먹고 살 길을 찾아 나서야겠구나 하고 말이다. 과 동기들은 군대로, 다른 과로, 대학 밖으로 떠났고 동네 친구들은 바빠서 만나기조차 힘들다.

대학주보 기자가 되고 나서 항상 비슷한 편장을 들어왔다. 학점도 별로고 대외활동도 안 하면서 뭘 하겠다고 학보사에 그렇게 매여 사냐고, 왜 사서 고생이냐고. '현실 감각'을 갖고 빨리 거기서 나오라고. 나보다 이걸 빨리 깨달은 친구들은 지금 신문사를 박차고 나갔다. 그럴 때마다 일은 더 힘들어지고, 편집장이 되고 나니 인력난 속에서 위기가 닥칠 때마다 부족한 능력이 발목을 잡았다. 그때마다 '멘탈'은 산산조각났다. 하지만 그만큼 나 자신이 가진 한계와 개선점을 명확히 깨달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인생의 길이란 것도 정말 다양함을 알게 되었다.

얼마 전 교육방송에서 방영한 '우리는 왜 대학에 가는가'라는 다큐멘터리를 매우 인상 깊게 봤다. 비록 6회분의 시리즈를 다 보지는 못했지만, 내가 대학에 온 이유, 대학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영상이었다. 우리 사회에서 대학은 무엇인가. 대학주보 기자가 되고 나서 자주 갖게 된 의문이기도 했다. 부푼 꿈을 안고 들어간 대학은 수험생 시절 그리던 파라다이스가 아니었다. 낸 등록금에 비해 돌아오지 않는 교육의 질, 취업난과 이력서에 한 줄 더 써넣기 위해 빨버둥치는 스펙 경쟁, 그 속에서 점점 타산적으로 변해 가는 학생사회… 그나마 우리학교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타 대학과 차별성을 갖고 돌파구를 찾으려는 노력이 보여 다행이다. 수험생 시절 기업에 인수돼 '실용' 노선을 걷고 있는 C대에 합격했던 필자에게 부모님의 만류를 뿐리치고 우리학

교에 들어온 이유는 모두가 기업화를 부르짖는 시대에 후마니타스 칼리지를 통해 인문학을 외치는 우리학교가 대학다운 대학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물론 여전히 나아갈 길은 멀다. 재정 위기가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고, 말로는 '소통'을 강조하지만 여전히 미흡한 모습도 눈에 띈다. 하지만 신문이라는 창을 통해 지켜본 우리학교에 아직 희망은 남아있는 듯 하다.

성인으로서 주어진 알량한 '자유'를 누리며 대학이라는 울타리 속에 있어도 안녕하지 못하다. 곧 선거철이라 누굴 뽑을지 신문을 펼쳐보니, 한 후보는 등록금 인하가 대학생에 대한 사회적 존경심을 훼손시킨다고 한다.

재정 위기가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고, 말로는 '소통'을 강조하지만 여전히 미흡한 모습도 눈에 띈다. 하지만 신문이라는 창을 통해 지켜본 우리학교에 아직 희망은 남아있는 듯 하다.

TV를 틀어 보니 여객선이 뒤집히고 어린 학생들이 죽어도, 학생들이 거리로 나와도, 도로 한복판에서 연행돼도 정치인들은 테이블 뒤에서 책임 회피에 급급하고, 국정 조사에 누구를 증인으로 세우니 안 세우니를 두고 공방을 벌인다. 이런 모습을 볼 때면 손에 든 한 표는 한없이 작아진다. 내가 이걸 누구한테 던지는 세상은 그대로일 것 같아서 말이다. 사실, 실제로도 그대로다. 모두들 비장한 심정으로 투표소에 들어가지만, 변화를 바라는 마음은 표에 실리지 않고 사람과 함께 걸어나오기 때문이다. 이 글이 실린 코너는 '세시봉'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봉우리'라는 뜻이다. 하지만 기사 작성과 마감에 치여 사느라 주워들은 것만 많지, 정작 세상을 깊게 바라보진 못했던 것 같다. 그동안 봉우리를 쌓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 세상에 더 관심을 가질 때가 아닌가 싶다.

끝은 또 다른 시작이다. 20대의 첫번째 장을 장식한 대학주보 기자로서의 임기도 이제 끝이다. 두 번째 장의 도입부는 어떨지 궁금하다.

계열 분리가 능사는 아니다

취재수첩

이재은
(기자)



기자가 수험생 시절 우리학교에 가장 끌렸던 것은 후마니타스 칼리지 때문이었다. 다른 대학이 기업에 인수되고, 취업이 안되는 학과를 폐지하며, 실용 중심 수업을 중요시 할 때 우리학교는 반대의 길을 걸었다. 대학생들에게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는 것을 의무화하겠다는 후마니타스 칼리지는 다른 학교와는 단연 차별되는 것이었다.

후마니타스 칼리지의 중핵교과는 '인간의 가치 탐색', '우리가 사는 세계'로 구성돼 있다. 기자 역시 인가탐 수업을 듣고 있다. 인가탐 수업은 인문학적 내용이 주를 이루다 보니 문과 출신 학생들에게 좀 더 익숙한 주제가 많다. 수능 과목을 윤리로 선택했던 기자 역시 철학자들이 이름도 다 한 번쯤은 들어 본 경우가 많았다. 이런 점에서 윤리를 공부하지 않았던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느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공계열 학생들이나 예체능 학생들은 윤리 과목을 공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문과 학생들이라고 모두 윤리를 공부했던 것은 아니다. 이를 공부하지 않았던 학생의 배경 지식은 계열을 막론하고 거의 비슷하다.

모든 교수의 수업 방식이 똑같지는 않겠지만, 굳이 계열별 수업을 도입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비 인문계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존재한다

물론 이런 수업들이 고등학교 때 윤리를 배웠던 학생들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생각은 이해하지만 앞으로 자연과학을 다룬 과목 역시 중핵교과에 추가될 예정이고, 교수의 수업 방식에 따라 충분히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이과 학생들이 원하는 형평성이 어느 정도 맞춰질 것이다.

또한 교재의 서두에도 나오지만, 인가탐 수업은 배경 지식을 암기하기보다는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과제나 시험은 교과서에 중점을 둘 수 있겠지만, 수업시간에 교수는 교재 내용에 대해 배경지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대신 '왜?'라는 질문을 거듭한다. 학생들이 생각을 할 때 어떤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묻고, 평소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계기를 만들어 주기도 하며,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또한 평소에 훈서만 생각하고 고민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명쾌한 답을 주기보다는 계속 질문을 던지며 학생 스스로 생각하도록 돋는다. 모든 교수의 수업 방식이 똑같지는 않겠지만, 굳이 계열별 수업을 도입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비 인문계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존재한다.

또한 후마 측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미 계열별 분리 수업을 진행한 적이 있지만, 학생들의 만족도나 성취도는 매우 낮았다고 한다.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무작정 계열 분리가 답이 될 수는 없다. 계열 분리만을 주장하기보다는 수업 방식의 연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평가방식을 유연하게 하고, 수업 방식을 이공계나 예체능 계열 학생들도 충분히 배려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도 여기서 나오는 것이다.

만평 쥐잡기 운동이라도 해야 하나? 중앙도서관 도서 훼손 문제



뜨거운 쟁점, '선거날 수업'

와글와글 경희

이진우
(기자)



면 하루가 다 간다"며 "투표를 장려해야 할 대학에서 수업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을 표하기도 했다.

지방선거일은 대통령령에 의거한 법정 공휴일이다. 다만 이 공휴일은 관공서에 한해 적용되며 대학의 휴강을 강제할 수는 없다. 대학에서는 단지 관례적으로 휴강을 통해 투표를 권장했던 것이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사전투표제가 실시되는 관계로 휴강까지 할 필요성이 적어진 듯 하다.

물론 이는 전적으로 수업권을 가진 교수의 재량에 달려 있는 문제지만, 미처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못했거나 먼 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의 의견을 고려해 융통성 있는 수업 진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행사 한 번만 참여하면 '동아리 회원'?

총동연-한기연 간 갈등

김주환 기자 kjh93@kh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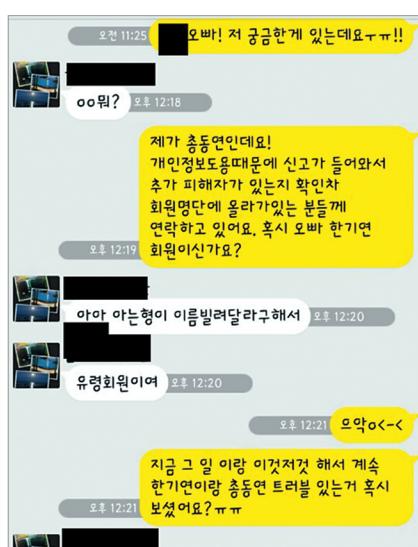
회원 명단 도용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 기독청년학생연합회(한기연)의 중앙동아리 징계 여부가 지난 10일 총동아리연합회(총동연) 2차 대표자회의에서 부결된 이후 총동연과 한기연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갈등은 대자보 형태로 나타났다. 총동연은 대표자회의 이후 회의 결과 보고를 통해 문제가 된 2012학년도 회칙은 대표자 55명 중 35명 찬성으로 적용하기로 결정했으며 한기연 징계는 부결됐음을 알렸다.

다음날 한기연은 '제대로 된 제2차 대표자회의 결과보고'라는 대자보를 통해, 2012학년도 회칙이 비록 회의 당시 대표자들의 동의를 얻었지만 회칙 출처 자체가 불분명하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총동연이 동아리 회칙을 무시하면서 동아리 명단 작성은 압박했다'며 비판했다.

이후 한기연이 2012년 주최한 '오해피톡'이라는 친목 동아리에 가입했는데 본인의 개인정보가 한기연의 이름으로 올라갔으며, 명의 도용 피해자를 자처하는 학생의 대자보가 서울캠퍼스 각 게시판에 붙었다. 이에 따르면 "2012년 6월 동아리를 그만두고 2013년 2학기에 휴학을 했으나 올해 초 한기연 측에서 이름을 회원 명단에 올리겠다고 전해왔고, 거부 의사 를 밝혔지만 이후 '총동연에서 연락이 오면 한기연 소속이라고 말해달라'는 부탁을 해왔다"며 "한기연은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리"고 주장했다. 대자보가 붙은 직후 한기연은 즉시 반박 대자보를 통해 "해당 학생이 '오해피톡'을 한 기연에서 주최하는 줄 몰랐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며 "총동연은 일개 동아리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총동연이 한기연을 고소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총동연 황준영(호텔경영학 2010) 군은 "한기연의 대자보와는 달리 고소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명의 도용 피해자가 고소를 부탁해 경찰서에 문의했고, 명의 도용을 통한 동아리 지원금 및 동아리방 획득 건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답은 받았지만 고소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한기연의 명부 조작을 둘러싼 공방의 배경에는 한기연 특유의 회원 모집 방식이 있다. 한기연은 2005년부터 '우리들의



한기연 명부조작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사진 원쪽). 총동연이 한기연을 고소했다는 내용의 대자보

총동연, 한기연 고소 '사실무근'

한기연, 행사 참가자 회원으로 간주

행사 참가자, "명의 도용일 뿐"

'명부 조작' 사태, 동아리 지원금

배분에서 비롯



데 전화번호를 바꾸거나 군대에 간 사람의 경우 자신도 모르는 새 명부에 올라가게 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총동연에 따르면 한기연 회원 명단에 올라와 있던 18명 중 6명이 개인정보가 도용된 경우이고, 3명은 군대 문제 등을 이유로 휴학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명부 조작을 이유로 2012년 CBA, UBF, 증산도 3개 동아리가 제명된 사례가 있다.

명부 조작 사태가 반복되는 이유는 동아리 지원금 배분 시 기준이 명부에 등록된 회원 수이기 때문이다. 총동연 회칙에 따르면 총동연은 매 학기마다 동아리 회원 명부, 사업 계획서, 직전학기 사업 결과보고서를 기준으로 대표자회의와 운영위원회에서 배분액을 결정한다. 그러나 동아리별 사업 내역의 경우 회원 수에 비해 객관성이 떨어져 실질적으로는 회원 수가 지원금 배분에 가장 큰 기준인 실정이다.

한편, 한기연에 지속적으로 외부 간사가 개입해 활동한 점도 드러났다. 총동연 황 회장은 "대표자회의 이전까지 총동연에 한기연 대표로 나선 사람은 현직 회장이 아니라 이미 졸업한 2010년도 회장 류모씨고, 실질적으로 한기연을 운영하고 활동비를 사용하는 주체는 외부 간사"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대학생 엔카운터 그룹' 포스터에 적힌 연락처 역시 류모씨의 연락처로 돼 있었다.

이에 대해 한기연 측은 "대자보에 적힌 내용이 전부"라며 대학주보의 취재를 거부했다. 다음 대표자회의는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며, 논란이 된 현행 총동연 회칙 개정과 한기연의 징계 여부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1면에서 이어짐

또한 절대평가 실시 요구에 대해서는 "학사규정에 따르면 종핵교과는 실습이나 실험을 포함하지 않아 절대평가로 전환될 수 있는 조건이 없으며, 우리학교의 상대평가가 그렇게 엄격하지도 않다"고 답했다.〈대학주보 제1553호 4면 2013.11.04.〉

장 회장은 이에 대해 "이공계나 예체능 계열 학생들이 성적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점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들이 수업 과정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는 것"이라며 "이들의 수업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소통을 통해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공계·예체능계 단과대 학생회들의 경우 후마의 커리큘럼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음악대학 학생회 김낙영(기악 2010) 회장은 "단과대나 각 과마다 입학 전형이 다른 만큼 이러한 배경지식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며 "각 과의 특성에 맞춘 고교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공과대학 학생회 조현권(건축공학 2009) 회장은 "중

핵교과의 과목 취지에 상대평가는 맞지 않고, 계열을 막론하고 학생 전체가 듣는 수업인 만큼 이공계열 학생은 인문계열 학생에 비해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후마 대학생위원회가 주장하는 계열별 분리에 대해 찬성을 표했다.

그러나 후마 측은 이미 2013년에 논의가 끝났다는 입장이다. 종핵교과 PD교수를 맡고 있는 박상용(후마) 교수는 "분반수업은 후마 취지에 맞지 않고, 시범 운영도 이미 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지난해 대학생 위원회의 문의에 대해 후마 측에서 서면으로 답했고, 당시 토론회에서 끝난 논의를 왜 다시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논란에 대해 후마 도정일 대학장은 "계열별 분리 수업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 간 토론과 통섭을 목적으로 하는 후마의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일"이라며 "통합이라는 틀은 유지하되, 전공 때문에 불이익을 받거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학생이 없도록 교수법이나 커리큘럼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연과학 다룬 중핵교과 강의 추가된다

김주환 기자

후마나티스칼리지(후마)는 현재 중핵교과 과목에 자연과학 관련 내용을 다룬 '빅뱅에서 인간까지'를 추가할 것을 논의하고 있다. 이번 학기 서울캠퍼스에 처음으로 개설된 배분이수 강의 '빅뱅에서 인간까지'는 생물학, 화학, 열역학, 양자역학 등 다양한 자연과학 이론과 과학과 문명 간의 연관성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후마 도정일 대학장은 "이는 후마 구상 당시부터 존재하던 계획이나, 분야별로 차이점이 뚜렷한 자연과학의 특성상 교양으로서의 커리큘럼 구성이 어려워 보류했다"며 "교수법을 보완해 비전공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배분이수 '빅뱅에서 인간까지' 강의 구성〉

회차	내용
1주차	과학교양의 중요성
2주차	시공간의 이해: 우주의 기원과 진화
3주차	보이지 않는 작은 세상의 모습: 양자역학과 불확정성 원리 - 물질의 인식
4주차	세상의 물질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 원자, 분자, 그리고 화학결합 - 물질의 이해
5주차	기체, 액체, 고체는 어떻게 다른가?: 물질의 상태와 성질
6주차	에너지 vs. 엔트로피: 열역학의 법칙들
7주차	살아 있음은 진정 기적인가?: 생명과 생물체의 과학적 본질
9주차	인간은 과연 지속 가능한가?: 자연선택과 적응적 진화, 그리고 공존의 역설
10주차	지구환경과 인류의 발자취
11주차	기후 변화와 위기의 생태계, 그리고 지구촌의 미래
12주차	과학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 : 미래의 과학

는 "2012년 처음 연구가 시작돼 현재는 일종의 파일럿 강의 개념으로 운영하고 있고, 구체적인 커리큘럼과 교재에 대해서는 연구 중"이라며 "이르면 2016학년도부터 '인간의 가치 탐색', '우리가 사는 세계'와 같은 중핵교과 강의로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후마 도정일 대학장은 "이는 후마 구상 당시부터 존재하던 계획이나, 분야별로 차이점이 뚜렷한 자연과학의 특성상 교양으로서의 커리큘럼 구성이 어려워 보류했다"며 "교수법을 보완해 비전공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차	내용
1주차	과학교양의 중요성
2주차	시공간의 이해: 우주의 기원과 진화
3주차	보이지 않는 작은 세상의 모습: 양자역학과 불확정성 원리 - 물질의 인식
4주차	세상의 물질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 원자, 분자, 그리고 화학결합 - 물질의 이해
5주차	기체, 액체, 고체는 어떻게 다른가?: 물질의 상태와 성질
6주차	에너지 vs. 엔트로피: 열역학의 법칙들
7주차	살아 있음은 진정 기적인가?: 생명과 생물체의 과학적 본질
9주차	인간은 과연 지속 가능한가?: 자연선택과 적응적 진화, 그리고 공존의 역설
10주차	지구환경과 인류의 발자취
11주차	기후 변화와 위기의 생태계, 그리고 지구촌의 미래
12주차	과학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 : 미래의 과학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수시모집 안내

전형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입학원서 접수	2014. 6. 10(화) ~ 12(목) 17:00까지	인터넷 접수 (유웨이어플리케이션) http://www.uwayapply.com/
구사서류 및 실비를 접수	2014. 6. 17(화) ~ 19(목) 09:00~17:00까지	현장접수 (의학관 22층)
1단계 합격자 발표	2014. 7. 17(목) 16:00	본 대학원 홈페이지 게재 (개별 통보하지 않음) http://khusm.khu.ac.kr/
심사면접조사 및 고시장 조회	2014. 9. 11(금) ~ 13(토) 16:00	
심사면접조사 예상일정	2014. 9. 13(일) 09:00 예상이	의학관
최종 합격자 발표	2014. 9. 25(목) 16:00	본 대학원 홈페이지 게재 (개별 통보하지 않음) http://khusm.khu.ac.kr/
합격통지서 및 등록비 예치금 고지서 출역	2014. 10. 6(화) ~ 10(금) 16:00까지	본 대학원 홈페이지에서 출력 http://khusm.khu.ac.kr/
등록비 예치금 납부	2014. 10. 6(화) ~ 10(금) 16:00까지	한나은행 전국지점
잔여등록금 납부	2014. 12. 30(화) ~ 2015. 1. 2(금) 16:00까지	한나은행 전국지점

※ 학사정정 및 의학교육문집검사(MEET) 시험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함.
■ 전형별 지원자격 및 전형방법
1. 모집인원 : 70명(일반전형)
※ 지원자 중 전형 성적과 현저하게 저조하여 본 대학원 수학능력이 불충분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입학사정과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일학을 하기 어렵거나 학업에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지원자를 제외함.
2. 지원자격
가. 국내·외 4세대 이상 정상대학 출신으로 학사학위 취득(예전기) 및 법령에 의거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1) 2015학년도 의학교육전문가(MEET)에 응시하여 공식성적 취득 예정인 자
2) 2012. 6.부터 원서접수 마감일(2014. 6. 12) 이내에 응시하여 취득한 공인영어·성적(※ 본 대학원에서 정한 기준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자
3) 2012. 6.부터 원서접수 마감일(2014. 6. 12) 이내에 응시하여 국어능력증명서(TokL) 또는 KEB국어능력능력시험 성적을 취득하고 성적표 원본을 구비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는 자
4) 공인영어 성적 기준
가) TOEFL CBT 215점 이상 / 나) TOEFL IBT 80점 이상 / 다) TEPS 659점 이상
나. 지원자격으로 선수과목 이수를 요구하는 경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학전문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거나, 본 대학원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Tel : 02-961-0274, 0301 e-mail : hsc0600@khu.ac.kr 홈페이지 : <http://khusm.khu.ac.kr/>

의학전문대학원

2014학년도 후기 신입학 및 편입학 모집

<table

기존 입점 업체 '계약' 해결 등 '난제' 많아

국제캠 총학 생협 설립 추진

이승연 기자 leesy0317@knu.ac.kr
황경선 기자 sunny96@knu.ac.kr

2000년대 초부터 대학가에 불었던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생협)의 바람이 우리학교 국제캠퍼스(국제캠)를 맴돌고 있다. 하지만 2000년대 초에 비해 지금은 생협을 도입하는데 상당한 장애물이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매년 바뀌는 총학생회(총학)에 따라, 지속성도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우리신문은 국제캠 생협 설립이 다시 추진되는 현재의 상황을 진단해보고, 향후 방향에 대해 짚어봤다.

국제캠 총학이 생협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국제캠 생협은 2011, 2013년 총학의 주요공약으로 제시됐지만 제대로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국제캠에서 생협이 다시 추진되는 배경에는 서울캠퍼스(서울캠)와의 '물가' 차이가 결정적인 이유로 자리한다. 이원화 캠퍼스 구조 속에서 양 캠퍼스를 오가며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그 차이를 실감하고 있다. 전경민(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 2013) 군은 "생협을 도입한 서울캠이 국제캠보다 물가가 더 저렴하다"며 서울캠에서의 생활이 더 경제적이라고 말했다.

재개된 생협 설립 논의 국제캠 총학 '숙원사업'

생협이 공동구매를 통해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상품을 공급하기 때문에, 생협이 있는 서울캠과 없는 국제캠 내 매장의 상품가격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생협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교내 장학금이나 다양한 학내 행사 활동에 사용되고 있는 만큼, 국제캠 학생들은 생협 도입을 꾸준히 주장해왔다.

이런 요구에 따라 국제캠 총학은 지난 달 12일부터 23일까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추진위원회' 위원단을 모집한 상태다. 앞으로 생협 추진위원회는 홍보팀, 조사팀, 협상팀으로 나뉘어 운영될 계획이다. 이런 추진위원회의 구성은 지난 총학의 생협 추진 실패사례에서 비롯됐다.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총학 황희재(기계공학 2010) 부회장은 "이전 총학부터 생협 설립을 추진해왔었으나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업이 지속되기



서울캠퍼스 청운관 식당을 비롯해 생협이 운영하는 교내 매장은 학생 사이에서 만족도가 높다

총학, "생협 추진 지속성을 확보해 설립 꼭 이루어 낼 것"

대학본부, "학교에 수익이 줄어들면 학생들에게 돌아갈 혜택도 줄 것. 신중해야 할 문제"

어려웠다"며 "추진위원회를 운영해 생협 설립까지 지속적으로 활동이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제캠 총학은 지속성이 부족하다는 점 외에 학생 중심의 논의도 문제점으로 판단해, 구성원 대표가 모두 참여하는 논의 테이블을 만들어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총학은 등록금책정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한 건의사항을 전달했고, 대학본부 측은 회의를 구성하는 방식과 이를 통해 생협에 대해 논의하는 것에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은 상태다.

다만 국제캠 생협 추진이 서울캠 생협 도입 사례와는 시기, 여건 등의 측면에서 모두 장애물이 산적해 있다. 우선 기존 입점업체들의 성격차가 크다.

서울캠의 경우 지난 2002년 생협준비위가 발족했고, 1년 만인 2003년에 생협설립 인가를 획득해 비교적 원활하게 생협이 출범할 수 있었다. 기본적으로 당시 서울캠에 대형업체가 입점해있지 않았기 때문에, 협상에 큰 어려움이 없었고 특히 영세 업체들과의 계약 역시 만료시기와 맞물려 있었다. 또한 입대매장인 만큼 직접 관리할 필요가 없었고 세금 측면으로도 학교

가 부담할 부분이 적어진다는 점이 학교의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 부분이었다. 때문에 일부 업주들과 충돌이 있는 했으나 했으나, 결국 생협 설립이 추진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 국제캠에는 대형 업체들이 입점해있는 상태다. 서울캠 생협 흥주현 교육홍보팀장은 "국제캠은 서울캠에 생협이 설립될 때와 입점해있는 업체들의 성격이 다르다"며 "계약 문제는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학교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캠 생협 설립 당시와 상황 달라 대형 업체 많아 어려워

이런 상황 탓에 추진위원회는 캠퍼스 내에 존재하지 않는 편의시설 개점률을 시작으로 생협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홍부회장은 "캠퍼스 내에 없는 베이커리를 시작으로 생협을 시작할 것"이라며 "구성원의 공감을 얻어내 매점, 식당 등 차근 차근 생협을 확장시켜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입점업체 뿐만 아니라 서울캠과 국제캠의 유동인구도 고민의 대상이다. 서울캠의 경우 방학 중에도 경희의료원과 평화의 전당 등으로 인해 유동인구가 발생하는 반면, 국제캠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국제캠 생협 설립에 대해 학교 측 관계자는 "방학 중에도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캠에 비해 국제캠은 유동인구가 적어 사업성 면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 많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서울캠에 생협 설립이 도입될 당시와 현재 우리학교의 재정여건이 다른 점도 주요한 문제다. 기본적으로 매장 관리를 비롯해 운영이 외부업체에 있는 것이 '장점'이었던 2003년과 달리, 보다 많은 재정사업을 꼴몰하는 대학 입장에서는 '단점'이 되버렸다. 뿐만 아니라 생협의 임대료 수익이 대형업체에 비해 적은 것도 대학본부가 생협을 달가워하지 않는 이유다. 학교 측 관계자는 "생협은 임대료 수익이 많지 않다"며 "오히려 학생에게 돌아갈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재정수입 확대 필요성, 현재로서는 난관 많아

이런 대학본부의 입장은 생협이 일반 기업이 내는 임대료보다 적은 비용을 내지만, 그 수익이 다시 학생이나 구성원에게 돌아가는 비중이 적은 만큼, 생협이 전반적으로 더 큰 복지향상을 이를 수 있다는 국제캠 총학의 입장과 배치된다.

따라서 대학본부가 생각하는 '수익성'과 국제캠 총학이 주장하는 '복지' 사이의 조율이 생협 추진에 있어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생협 설립 기준 충족을 위한 법적 지위를 갖는 조직을 구성해야하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생협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300인 이상의 설립동의자와 3,000만 원 이상의 출자금이 필요하지만, 홍보부족과 구성원의 관심부족으로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처럼 국제캠 생협 설립에 상당한 난관이 존재한다. 다만 그동안과 달리 국제캠 생협을 추진하는 '주체'가 분명해지고, 지속성도 갖춰나가겠다고 밝힌 만큼 논의의 진전도 기대된다. 이제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구성원이 관심을 갖는지가 주요하다. 2011년부터 이어진 국제캠 생협 추진, 그 마침표가 찍힐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캠퍼스 2014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개설강좌

대학	이수구분	학수번호	강좌명	강사명	시간	수강인원	장소	비고	대학	이수구분	학수번호	강좌명	강사명	시간	수강인원	장소	비고
이과 대학 전공기초	MATH1101-S49	MATH1101-S49	미적분학및연습1	박정훈	13:00~17:50	30	이서505		기초교과	GEC1102-S49	인간의가치탐색	유광주	09:00~11:45	45	청302	4학년 출연대상자 전용강좌	
	PHYS1101-S49	PHYS1101-S49	물리학및실험1(실습)	강승훈	08:00~09:50		문301	팀티칭		GEC1102-S50	인간의가치탐색	이정순	13:00~15:45	45	청302	4학년 출연대상자 전용강좌	
	PHYS1101-S50	PHYS1101-S50	물리학및실험1(이론)	여승준	10:00~12:45		문403	팀티칭		GEB1101-S49	글쓰기	권오희	13:00~15:45	25	청303		
	BIOL1101-S49	BIOL1101-S49	생물학및실험1(실습)	김유리	16:00~17:50		문301	팀티칭		GEB1101-S51	글쓰기	김진선	09:00~11:45	25	청303		
	BIOL1101-S49	BIOL1101-S49	생물학및실험1(이론)	정명숙	08:00~10:45		문405	팀티칭		GEB1101-S52	글쓰기(외국인용)	박정은	09:00~11:45	25	청203	유학생 전용강좌	
	GEOG3202-S49	GEOG3202-S49	지역사회해	박진선	09:00~11:45	30	이동801			GEB1102-S49	글쓰기	호정은	13:00~15:45	25	청203	유학생 전용강좌	
	MGMT2001-S49	MGMT2001-S49	경영정보시스템	노인성	09:00~11:45	60	2211			GEB1102-S50	글쓰기	방민석	13:00~15:45	25	청402		
	MGMT2004-S49	MGMT2004-S49	재무관리	김영식	13:00~15:45	60	2211			GEB1102-S51	글쓰기	이현선	09:00~11:45	25	청402		
	MGMT2002-S49	MGMT2002-S49	마케팅원론	이용근	09:00~11:45	60	2210			GEB1201-S49	영어	Gregory Nappo	13:00~15:45	36	청403	basic	
	ACCT1002-S49	ACCT1002-S49	조회행동론	손운근	13:00~15:45	60	2210			GEB1201-S50	영어	Jordan Davison	09:00~11:45	36	청403	basic	
경영 대학 전공기초	MGM1003-S49	MGM1003-S49	책임경영	안치웅	09:00~11:45	60	2212			GEB1201-S51	영어	Jonathan Davis	13:00~15:45	36	청404	intermediate	
	MGM1001-S49	MGM1001-S49	경영통계학	최은주	11:00~12:50					GEB1201-S52	영어	Joseph Faraci	09:00~11:45	36	청404	intermediate	
	ACCT1002-S49	ACCT1002-S49	회계학개론	박해정	11:00~12:50					GEB1202-S49	영어	Neal Williams	13:00~15:45	32	청502	basic	
	MGMT2005-S49	MGMT2005-S49	조직행동론	이정숙	09:00~11:45	60	2209			GEB1202-S51	영어	Andrew Thompson	09:00~11:45	32	청503	intermediate	
	MGMT2002-S49	MGMT2002-S49	조직행동론	손운근	13:00~15:45	60	2210			GEB1202-S52	영어	Bryan Cheron	13:00~15:45	32	청503	intermediate	
	ACCT1002-S49	ACCT1002-S49	회계학개론	나현중	13:00~15:45	60	2209			GEB1301-S49	시사교양	오현경	13:00~15:45	37	청504	2014번 수강불가	
	MGMT2003-S49	MGMT2003-S49	책임경영	안치웅	09:00~11:45	60	2212			GEB1301-S50	시사교양	우대식	13:00~15:45	37	청504	2014번 수강불가	
	MGMT1001-S49	MGMT1001-S49	경영통계학	차재빈	13:00~15:45	60	2212			GEB1302-S49	생명의학	정명숙	13:00~15:45	60	청301		
	ACCT1001-S49	ACCT1001-S49	회계학개론	나현중	13:00~15:45	60	2209			GEB1302-S50	생명의학	이재현	09:00~11:45	100	온라인	온라인	
	PHIL2006-S49	PHIL2006-S49	한국철학사	이현선	09:00~11:45	20	문304			GEB1304-S49	공학기초1(한국·한국·영어)	정명숙	09:00~11:45	60	청306		
문화대학 전공필수	PHIL2007-S49	PHIL2007-S49	최립철학	박종화	13:00~15:45	20	문304			GEB1304-S50	공학기초1(한국·한국·영어)	정명숙	13:00~15:45	60	청306		
	ENGG1001-S49	ENGG1001-S49	영문학입문	오봉희	09:00~11:45	20	문303			GEB1305-S49	영화	송대현	13:00~15:				



정지호
사학 교수

이 현재는 동아시아(한중일) 내셔널리즘의 형성 기원을 비교사적으로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경제의 탈민족주의화가 가속화돼가는 시점에서 동아시아 내셔널리즘의 형성 기원을 비교사적으로 살펴보는 것에는 어떤 의의가 있을까?

동아시아와 내셔널리즘 ③

연재순서

- 1회 : 내셔널리즘의 형성 - 일본의 경우
- 2회 : 내셔널리즘의 형성 - 중국의 경우
- 3회 : 내셔널리즘의 형성 - 한국의 경우
- 4회 : 미래지향적 역사 논의를 위해

“

삼일운동은 식민지 시기의 민족 운동이 반일 반제 내셔널리즘으로 대중 차원으로까지 확산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이 운동에서 출신과 이념을 넘어 일본의 지배에 저항하는 ‘단군 아래 하나의 민족’이라는 새로운 사상이 힘을 발휘하게 된 것이다

”

교양리포트 ⑩ – 영화 속 그림 읽기, 포스트모던 아트 읽기

‘교양 예술교육’이 갖는 의미란?



이현민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후마니타스 칼리지 예술교과가 추구하는 성숙한 인간교육의 핵심은 이론을 기반으로 한 미적체험을 통한 상상력과 지식결합이다. 대학교육의 상상력이란 ‘창의’를 말한다. ‘영화 속 그림 읽기’와 ‘포스트모던 아트 읽기’에서는 창의를 위한 경험을 한다

식민지 경험 통해 ‘민족’ 의식 형성한 한국

중화세계의 질서 속에서 청조와는 사대 관계, 일본과는 교린 관계를 유지해 오던 조선은 19세기 말 서구 열강과 접하게 되면서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됐다. 일본과 중국이 서구의 충격에 대응해 근대 국민국가 건설에 착수한 반면, 조선은 중국의 속 국임을 내세워 화이론적 세계관을 고수한다.

국내의 천주교도에 대한 탄압(1801년의 신유사옥 등)이나 미국, 프랑스 양국의 개국 요구에 대한 무력 격퇴(1866년 병인 양요, 1871년 신미양요) 등 쇄국양이의 체제가 강화됐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근대적 내셔널리즘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화이론적 세계관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된 것이다. 1860년대에는 서학에 대항해서 토착 민족 종교인 동학이 창시돼 갑오동학농민전쟁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동학은 외세에 저항했다는 점에서 국민주의적 내셔널리즘의 가능성은 임태하고 있었지만, 왕조 정부와 일본군의 무자비한 탄압 하에 그 가능성이 짜트지는 못했다.

화이론적 세계관에 입각해 쇄국정책을 추진하던 조선은 1875년 강화도 사건을 계기로 이듬해 마침내 조일수호조규(일명 강화도조약)를 체결해 일본에 문호를 개방하게 된다. 조약문에는 조선국은 ‘자주국’이며 일본국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고 돼있다. 일본은 이것으로 주권국과 간의 조약 관계가 체결됐다고 봤지만, 조선 측에서는 종래의 교린 관계를 확인하는 정도에 불과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후 서구 열강과의 잇따른 조약 체결을 통해 조선은 중국과의 사대관계를 청산하고 근대 민국가를 형성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된다. 1884년 개화파에 의해 주도된 갑신정변은 중국으로부터 독립과 근대화를 지향했지만, 지나치게 일본에 의존한 채, 민중의 폭넓은 지지를 결여함으로써 내셔널리즘이란 측면에서는 아직 미숙했다.

청일전쟁을 통해 자의간 타의간 중국과의 사대관계를 청산한 것은 근대 내셔널리즘 형성에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고 볼 수 있다. 1897년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변경하고, 황제에 즉위해서 독자 연호를 채용한 것 등은 바로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한다. 특히 이 시기에는 관민합동의 독립

협회가 조직돼 정부의 개혁에 협력하고 독립신문(한글판, 영문판)을 발행하는 등 자주적 근대화에 전력을 기울였다. 특히 중국의 사절을 맞이하던 영은문을 헐고 그 자리에 독립문을 건설한 것은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상징하는 것이며, 향후 대한제국의 독립을 염원하고 있는 것이다.

반일, 반제에서 혁명적 내셔널리즘으로

이 시기에는 사회진화론의 영향으로 부국강병이 주창됐으며, 국권의 옹호 회복을 위해 산업의 진흥, 교육의 보급이 도모됨과 함께 애국심이 고양돼 국학연구도 번성하게 됐다. 신문, 잡지 등에서 한글의 사용이 일반화됐다. 박은식이나 신채호가 ‘일본흔’에 대해 ‘조선흔’을 주창하고, 안중근이 부국강병의 논리를 부정하는 소국주의, 평화주의를 주장한 것도 바로 이 시기이다. 그러나 대한제국의 근대 국가 건설 과제는 한국이 일본에 의해 강제병합 됨에 따라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도 못한 채 좌절됐다.

일본에 의한 강제병합으로 자주적 근대국가 건설이라는 희망이 사라짐에 따라 감성적이면서도 본능적인 흡인력을

지닌 민족이 새롭게 등장하게 됐다. 이 민족의 논리는 강제병합 이전에는 정치적인 국민 창출이라는 논리에 부차적으로 병존하고 있었지만, 사회진화론에 입각한 근대국가 건설이 현실적으로 파산하게 되자 제국주의에 맞설 수 있는 정신적 군대로서 민족주의가 전면에 나서게 된 것이다. 근대 내셔널리즘은 근대국가 건설 과제에서 일제에 저항하는 반일 반제 내셔널리즘으로 전환하게 된다.

중국의 양치차오에게 많은 영향을 받은 신채호는 민족을 역사적 존재,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는 인간집단으로 인식하고 정치적 국민 창출과는 별도의 관점에서 한국인의 고유한 역사적 경험의 공유에 의한 민족을 발견하고 있다. 그는 강제병합 이후에 쓴 글에서 한국의 풍속, 언어, 습관, 역사, 종교 등을 한국의 고유한 역사적 문화로서 이는 한국인을 한국인으로 만드는 정체성의 핵심이라고 했다. 이러한 한국의 역사적 문화는 한국 민족에게 고유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보편적 가치나 척도에 의해서도 해소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구한말의 민족운동은 군사적 색채가 강한 일본의 식민지배 하에서 제대로 확산되지 못했다. 그러한 가운데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난 삼일운동은 식민지

시기의 민족운동이 반일 반제 내셔널리즘으로 대중 차원으로까지 확산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이 운동에는 한국이 일본에 강제병합되기 전에 서로 대립하는 측면이 있었던 제 세력이 일본의 압제에서 벗어나 독립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즉, 일본이라는 타자에 대해 우리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갖고 합류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출신과 이념을 넘어 일본의 지배에 저항하는 ‘단군 아래 하나의 민족’이라는 새로운 사상이 힘을 발휘하게 된 것이다. 물론 그 과정 효과는 매우 커졌다.

식민 지배하에서도 민족형성 위한 노력 지속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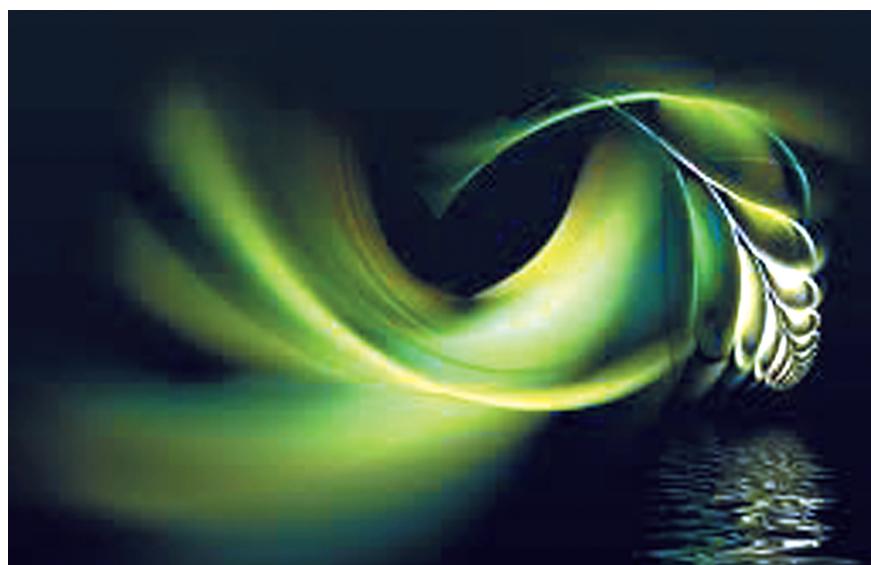
이와 함께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저항하는데 노동자 농민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사상으로서 사회주의가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하게 됐다. 한국의 근대 내셔널리즘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저항하는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그룹에 의한 통일전선 운동으로 전개됐다. 이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신간회는 비록 일제의 탄압과 지도력의 미비로 그 역할을 다하지는 못했지만,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세력을 힘을 합쳐 조선의 자주 독립을 지향했다는 점에서 혁명적 내셔널리즘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일제의 식민지 지배 하에서도 민족형성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노력이 지속됐다. 그 중에서도 한글 문법체계가 정비됐으며, 철자법의 통일안이 작성되어 현재 한글의 기초가 구축됐다. 또한 일본 문화의 영향이 강하기는 했지만, 근대적인 문학, 음악 등의 보급은 한국 민족의 공통의 인식, 심성을 담는 기초가 됐다.

일제의 식민지 지배는 한국의 국민국가 형성에는 커다란 저해요인이 됐다. 민족성의 과정을 종용한 황민화 정책, 강제징용 등은 한국인에게 씻어낼 수 없을 정도의 깊은 상처를 안겨줬던 것이다. 그러나 그 상처가 깊을수록 반일 내셔널리즘의 배타적 지위는 더욱 더 강고해 지면서 민족 안의 차이와 이해, 갈등을 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병폐를 낳기도 했다.



일제치하 민족운동은 3.1운동을 계기로 대중차원의 반일 · 반제 내셔널리즘 운동으로 확산됐다



예술교육은 다양한 시각적 언어와 상징체계의 계발에 관여해야 하며 세상과의 소통을 창조한다

자 하는 것이다.

필자의 강좌 ‘영화 속 그림 읽기’와 ‘포스트모던 아트 읽기’에서 이론수업과 함께 진행되는 전시장 및 작가작업실 탐방, 해외작가 초청특강, 실기 및 전시 등과 같이 예술 작품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참여하는 미적체험 수업은 창의를 위한 경험이 될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기량중시의 예술교육과는 다르다. 따라서 실기수업은 ‘무엇인가를 할 줄 아는 기술(skill)을 익히는’ 예술교육이 아니라 항상 ‘나’라는 주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자

신을 느끼고, 지각하며, 표현할 줄 알고, 질문할 줄 알게 되는 예술교육을 지향한다. ‘나의 자화상’과 ‘나의 미래’를 고민하고 다양한 시각적 언어와 상징체계의 계발에 관여해야 하며 세상과의 소통을 상상하고 창조한다.

헤르베르트 마르쿠제(Herbert Marcuse)는 예술이 “화석화된 세상을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춤추게 하도록” 만든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존 듀이(John Dewey)는 미적 체험이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을 바라보는 기준의 방식, 수동적인 태도로는 미적 체험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필자의 수업을 통한 예술적-심미적 체험들이 화석 일상 속에서 감지되고 회자되고 듣지 못하는 것에 대해 인지하고 보고 듣게 해 주길 기대한다.

오늘날 많은 철학자들은 포스트모던 시대에 나타나는 가장 가치 있는 경험의 전형을 ‘도덕적 경험’이나 ‘종교적 경험’이 아닌 ‘미적 경험 혹은 체험(aesthetic experience)’에서 찾고 있다. ‘미적 체험’은 ‘종교적 경험’처럼 우리 존재를 어떤 것(절대자)에 전적으로 종속시키고 혼신할 것을 요구하거나 ‘도덕적 경험’처럼 의무적이거나 보편적인 원칙을 따르도록 강요하지 않는다. 다문화적이고 다원적인 가치가 갈등하며 공존하는 오늘날은 ‘머리’로는 타 문화를 인정하고 나와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더라도, 우리의 ‘몸’은 나와 다른 방식으로 살거나 취향이 다른 사람에 대해 체질적으로 거부반응을 일으키곤 한다. 이러한 서로의 차이에 대한 인정이나 다양성의 존중은 합리적 사고나 판단이나 의지보다는 우리 자신의 감수성의 변화로 가능하다. 이런 의미에서 이 시대는, 후마니타스 칼리지의 예술교과 수업처럼 교양 예술교육에 관심과 필요가 더욱 부각돼야 할 것이다.



취업에 대한 고민을 혼자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학교에서 운영 중인 각종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양한 프로그램 적극 활용해야

취업의 속살 ④ - 올바른 취업 준비 방법

윤재훈 계장
국제캠퍼스
취업진로지원처



줄탁동시(卒啄同時)라는 말이 있다. 낚이 알을 깔 때에 알 속의 병아리가 깨끗이 나오기 위해 깨질 안에서 쪼는 것을 '줄'이라 하고, 어미 낚이 밖에서 쪼아 깨끗리는 것을 '탁'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행해지기에 도움을 받는 사람과 조력자의 이상적인 인연에 비유해 쓰이곤 한다.

취업진로지원처에서 근무하면서 진로와 취업을 고민하는 많은 학생들을 봐왔다. 물론 이에 대한 고민을 깊게 많이 해 보는 것은 좋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많은 학생들이 이토록 어려운 고민을 '혼자' 해결하려 한다는 것이다. '나의 진로', '나의 취업'이라는 점에서 스스로 해결하려는 모습은 기특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학생들의 진로와 취업을 돋는 취업진로지원처의 담

당자가 볼 때에 당사자와 모교인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느낀다. 바로 '줄탁동시' 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뜻이다.

학교와 취업진로지원처 그리고 동문들까지 학생들의 발전을 위해 여러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모두 교과목으로 형성돼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서 열심히 수업 듣는 것'만으로는 그러한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취업진로지원처가 운영하는 아래의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는 것은 어떨까.

첫째로 추천하는 것은 '해외인턴십프로그램'이다. 해외인턴십은 현재 기업이 요구하는 글로벌비즈니스역량의 대표적인 경력개발프로그램으로 어학, 비즈니스매니, 실무역량, 이문화수용능력, 커뮤니케이션스킬, 비판적·논리적사고능력 배양을 한 번에 습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둘째로 '진로상담교수제'이다. 진로상담교수제는 각 전공 전임교수들이 학생과 진로에 대해 1:1상담을 하는 제도로 2013학년도 국제캠

퍼스 기준 77%의 상담률과 84%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이 제도는 교수가 학생의 학사와 진로에 대한 부분을 지도함으로써 학생의 소속감 향상, 진로의 조기 결정 등에 도움이 되는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프로그램이다. 향후 진로, 취업에 관한 자료를 모든 전임교수들과 공유해 진로상담교수제에 대한 교수, 학생의 만족도를 더욱 높일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줄탁동문을 활용한 멘토링'이다. 선배들의 노하우는 학생들의 진로설정에 큰 도움이 된다. 멘토링과 관련된 취업스쿨에서는 멘토들의 특강을 접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이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열려 있다. 6기수를 맞고 있는 모자이크 프로그램이나, 멘토링데이, 멘토링공모전 등이 멘토링을 활용한 대표적인 지원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1년 전 진로와 취업에 대한 불안감으로 취업진로지원처의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왔던 한 학생은 아직 준비된 것도 없고 학점이나 외국어 어느 하나도 자신 있는 부분이 없었다.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막연한 고민을 털어놓는 그 학생에게, 마침 며칠 뒤에 있을 멘토링데이를 추천했고, 행사

당일 그 학생을 만날 수 있었다. 참여소감을 묻는 문자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것 같다'는 말을 하더니, 그 뒤로도 종종 취업진로지원처에 찾아왔다. 올 때마다 자신 있는 표정으로 변해가고 우리에게 요청하는 질문에서도 '준비된'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1년이 지난 후 그 친구는 자신처럼 고생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멘토를 자청하며 우리를 다시 찾았습니다. 특히, 이렇게 도움을 받은 학생들이 사회로 나가서 다시 학교로 환원하기 위해 돌아오는 모습을 볼 때 큰 보람과 가치를 느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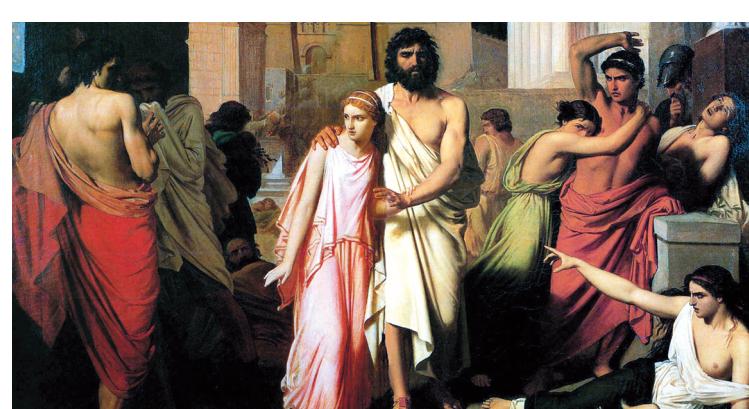
취업진로지원처는 다양한 전공자와 여러 학년의 학생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행정을 펼치고자 노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일부 특화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학생들이 도움을 얻고자 하는 의지와 열정만 있다면, 본인이 정말 원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병아리가 깨질 안에서 두드리듯이 모교에 도움을 청하기 바라며, 취업진로지원처는 어미 낚의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다.

▶1면에서 이어짐

소포클레스는 기원전 497년경에 그리스의 도시국가 아테네에서 태어났다. 당시 아테네는 살라미스 해전의 승리로 그리스 연합국들 중에서 가장 부유하고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다. 경제적 풍요로움과 더불어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가 꽃피던 시절이었고, 국가생활의 표현으로 예술을 위한 각종 축제가 펼쳐졌던 때였다. 소포클레스는 아테네가 몰락으로 돌아서서 결국에는 패망하는 전환기에 작품 활동을 펼쳤다. 소포클레스는 아테네의 위기가 도시국가에서 제국으로 확장하기 위해 주변 동맹국들을 무력으로 굴복시키면서 자초한 애심 때문이라고 보았으며, 인간의 지식과 권력이 타락을 겪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심층적으로 파고들었다.

소포클레스는 지식과 권력의 위험성을 이렇게 경고한다. "오만은



샤를 프란시스 잘라베아의 그림 '테베를 떠나는 오이디푸스를 이끄는 안티고네'

“오만은 폭군을 낳는 법, 오만은 시의(時宜)를 얻지도 못하고, 유익하지도 않은 부(富)로 헛되이 자신을 가득 채우고자 꼭대기로 기어올라갔다가 가파른 파멸 속으로 굴러떨어지니, 거기서는 두 발도 무용지물이라리라.”

선왕이 자신의 아버지이며 왕비가 자신의 어머니라는 사실, 찾고 있는 살해자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오이디푸스는 바로 눈앞의 것만을 보느라 정자 자기 자신이나 더 먼 곳을 보지 못하는 눈 뜯 장님이다. 마찬가지로 자신이 아는 것에만 안주하는 태도와, 이익이나 출세를 위한 것으로만 사용되는 지식은 언제든지 자신을 향한 칼날이 될 수 있다.

인간의 위대함은 이성적인 능력이 아니라 그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되돌아보는데 있다. 텔포이 신전의 문설주 위에는 ‘너 자신을 알라!’는 아폴론 신의 계명이 새겨져 있었다고 한

다. 소포클레스는 이 계명을 인간의 오만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였고, 동시대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 계명을 갖고 아테네 사람들의 등에를 자처하면서 스스로의 무지를 깨닫게 해주는 대화의 철학을 펼쳤다. 그리스의 문학과 철학은 이러한 자기반성과 겸허함 속에서 인간의 위대함을 보았던 것이다.

참여마당

박정일
경영학 2011



선거 앞둔 우리에게는 '시민적 자존감'이 필요하다

6.4 지방선거가 이번 주로 다가왔다. 선거는 단순히 대표를 뽑는 것에만 그치는 의식이 아니다. 선거를 치른다는 것은 우리 사회 주요 현안에 대한 논쟁을 나누고, 이를 통해 민주주의가 발전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여기서 유권자의 선택과 판단을 돋기 위한 미디어의 역할은 점점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분파적 세력 대결로 치닫는 선거 양상, 경쟁지역 위주의 경마식 보도, 겸증되지 않은 내용의 기사와 효과적인 수단이 될 줄 알았던 SNS까지 왜곡되고 확실하지 않은 정보의 흥수로 유권자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문제는 미디어뿐만 아니라 후보자들 내부에도 있다. 지난달 21일 경기도 모 지역 시장 선거 예비후보를 매수하려 한 혐의로 2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그들은 “출마를 포기하면 도시공사 사장 자리와 장례식장 사업권을 주겠다”고 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투표를 앞두고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서 이 같은 불법 행위가 적지 않지만, 실제로 적발되는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내부자의 고발이나 폭로가 없는 한,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나 수사기관에서 먼저 알아내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대내외적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를 막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민주주의가 위험에 빠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투표라는 것을 자각하는 것부터가 중요하다

올바른 선거를 위해 투표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은 후보를 가려내기 위해 적극적인 탐색을 하는 것이다. 후보의 자격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덕성과 자질, 책임감 같은 됨됨이다. 판단을 위한 정보를 얻기 위해 선관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후보들의 경력과 재산, 병력, 전과, 학력, 세금 납부, 체납 내용을 알 수 있다. 공약도 진정 나의 삶과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육석을 가려야 한다. 공약 실현에 드는 예산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결국 국민세금으로 부담할 '공짜 공약'을 남발하는 후보에게 중역을 맡겼다는 후회하게 될 공산이 크다.

위와 같은 제도 마련과 후보자에 대한 정보 탐색도 중요하지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시민적 자존감’이라고 생각한다. 얼마 전 답사를 다녀온 평화시장의 전태일 열사가 떠오른다. 그는 노동법의 존재를 모르고 지내다가 후에 노동자로서의 권리와 깨우치고 정면으로 맞섰다. 불꽃이 되어 사라지기 전에 끝까지 그를 지탱한 것이 진의(眞義)의 시민적 자존감이라고 할 수 있다. 모두가 이렇게 숭고한 불꽃이 되라는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가 위험에 빠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편이 투표라는 것을 자각하는 것부터가 중요하다. 시민적 자존감은 자기가 생각하는 시민으로서의 할 일을 직접 행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행사를 해야 비로소 권리가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고스란히 그것을 이용하는 누군가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갈 뿐이다.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후보를 보는 시선과 동시에 우리 자신부터 어떤 모습인지 유심히 관찰해야 한다.

한국어·외국어
전문 교육기관

외국어강좌

경희 대 학 교
국제교육원

LEAP Program

가. 접수 기간 : 1차 2014. 6. 9(월) ~ 6. 24(화)
2차 2014. 6. 9(월) ~ 7. 22(화)

나. 강의 기간 : 1차 2014. 6. 30(월) ~ 7. 24(목)

2차 2014. 7. 28(월) ~ 8. 21(목)

다. 프로그램 일정

	1차	2차
LEVEL TEST	6. 25(수) 17:00 2014. 6. 30(월)	7. 23(수) 17:00 2014. 7. 28(월)
입교식	2014. 7. 10(목)	2014. 8. 7(목)
Game Day	2014. 7. 24(목) 16:00	2014. 8. 21(목) 16:00

모집인원

한 번 정원 16명

강의대상

LEAP
LEAP Advanced

수강료

660,000원

※ 1, 2차 동시 신청 시 수강료의 10% 할인

라. 강의시간표

시간	강좌	LEAP	LEAP Advanced
09:00 ~ 10:20	Everyday Conversation		
10:30 ~ 11:50	Screen English		
13:00 ~ 14:20	Reading the World		
14:30 ~ 15:50	Practical Writing		Cultural Arts

※ 일정 및 시간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특전

- 경희대학교 총장 명의 영문 수료

- 영어1 수업 면제 혜택(서울캠퍼스) - 경희대 홈페이지 대학생활 커뮤니티 공지사항) 학사 첨고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스포츠 / 문화



우리학교 농구부 쇄부영 부장을 만난 유기웅(체육학, 2009) 군과 이재선 군

▶ 1면에서 이어짐

이 군은 네톡 제작진을 소개하며 “저희들 중 누구 하나 ‘미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라며 “특히 찬웅이랑 기웅이는 능력이 대단해요. 영상 속 멘트들을 전부 대본 없이 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처럼 재밌게 진행할 수 있는 사람도 드물어요”라고 말했다. 이렇게 말하는 그도 관심이 가는 분야는 정말 ‘미친’ 듯이 과고 든다. 그가 영상에 몰두하게 된 것은 2012년 체대임시 강사를 할 때부터이다. “강사를 할 때, 아이들 동작을 동영상으로 찍은 적이 있었어요. 그 때부터 영상 활용에 재미를 붙였어요. 그 후로 3개월 동안 책 한권 붙잡고 영상공부만 했어요. 정말 미친 듯이 했죠.”

이 군은 앞으로 더 큰 목표가 있다고 한다. “1학년 때 우리학교에서 진행한 ‘IMPACT’라는 프로그램에 참가해 뉴욕에 다녀왔어요. 그 때 미국대학농구리 그인 NCAA를 볼 기회가 있었어요. 그 선진 스포츠 문화를 보고 충격을 받았죠. 우리는 왜 저런 걸 못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군은 ‘Sportsnext’를 통해 우리나라에도 열정적인 스포츠 문화를 정착시키고 싶다고 한다. 그는 “국내에서 농구가 흥행하지 못하는 건 바꿔 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라고 말을 이었다. “저는 컨텐츠 제작과 마케팅에 대한 투자를 확대시키면 선수의 기량도 늘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당장 대학농구만 봐도 올해부터 서포터즈가 생기니까 팬들을 위해 선수들이 더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라며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그의 영상이 흥행함에 따라 ‘KB국민 카드 대학농구리그 서포터즈’, ‘한국농

구연맹’ 등의 기관에서 그에게 함께하자는 제안을 보내왔다. SNS에서 ‘Sportsnext’가 보여준 영향력을 인정받은 것이다. 그는 이런 제안들을 검토 중이며 다음 시즌에는 농구부가 있는 12개 대학에서 ‘Sportsnext’에 합류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미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등 몇몇 대학에서는 ‘네톡’을 제작하겠다는 뜻을 직접 밝힌 바 있다. 때문에 이 군은 얼마 전부터 여러 대학을 오가며 영상을 기획하고 촬영까지 도맡아하고 있다. 또한 그는 “우리학교의 한 학생과 영상을 쉽게 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있어요”라며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는 모습도 보였다.

얼마 전에는 ‘핀’을 더 크게 벌려보고 싶어서 뜻을 함께할 사람들을 모집했다. 이 군은 이때 연락 온 사람의 도움을 받아 농구 관련 의류를 만들어 볼 계획도 갖고 있으며, 벌써 각 대학 농구팀의 티셔츠를 디자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 군은 “이전까지는 컨텐츠를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면, 이제는 이 컨텐츠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 좋아하는 일을 하길 바란다는 이재선 군. 그의 또 다른 유쾌한 도전이 기대된다.

다. 어려운 일은 없느냐라는 질문에는 “변화를 두려워하는 데에서 생기는 장벽이 존재해요. 그래도 포기는 아예 생각해 본적도 없어요”라고 잘라 말했다.

“제 꿈이요? 잘 모르겠는데… 그냥 하고 싶은 거 할래요.” 그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해도 세상은 굴러가더라고요”라며 “20대의 성공은 불행이라고 누군가 제게 그랬어요.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 일 전부 다 하세요. 20대는 그래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남들이 정해주는 ‘해야 하는 일’을 벗어나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만은 않다. 그 역시 좋아하는 일만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멈추지는 않았다. “하다보면 전문성이 생기고 주변에 사람들이 생겨요. 저는 제가 가는 길이 제 커리어라고 생각해요. 제 스스로 만들어 낸 컨텐츠, 제게 영감을 주는 친구들, 그리고 제 안에 축적된 능력이 저만의 커리어죠.”

훗날 ‘Sportsnext’의 규모가 더욱 커지면 그 때 대학생들이 자신을 블로거 삼아 좋아하는 일을 하길 바란다는 이재선 군. 그의 또 다른 유쾌한 도전이 기대된다.

네톡



‘네톡’의 한 장면

인간이 가야 할 길에 대해 묻다

‘총장-후마니타스: 아레테’ 북토크

이재은 기자 jenny95@khu.ac.kr

개교 65주년 ‘총장-후마니타스: 아레테’ 북토크가 지난달 27일 네오르네상스관 누리극장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조인원 총장을 비롯해 여러 학생들과 교수들이 참여해 함께 의견을 나눴다.

본격적인 토론이 진행되기 전 먼저 조총장의 ‘인간의 길, 정치의 길? 변화의 전위에서’를 주제로 한 강연이 진행됐다. 강연은 얼마 전 있었던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과연 인간이 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 그리고 정치가 가야 할 길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담았다. 조 총장은 “변화의 전위에서”는 더 크고 너무도 욕심이 넘치는 주제이기도 하지만 주제와 부제 모두 정답이 없는 현실이다. 정답이 없기 때문에 저도 고민하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 세월호가 학제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왜곡과 모순, 더 크게는 현대 사회가 안고 있는 모순과 한계와 같은 문제를 다루는 것이 세월호 참사를 겪고 있는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은 세 명의 토론자가 무대에 올라 총장의 강연으로부터 느낀 점과 세월호 사건을 지켜보며 느낀 점을 이야기하며 진행됐다. 장내 열기가 뜨거워 토론은 예정된 시간을 훨씬 넘기고서야 마무리됐다. 우리 사회가 무엇을 고민하고 대학은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떤 가치가 우선이 되도록 해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하고 생각을 나누는 자리였다.

북토크에 참석한 최유진(주거환경학 2014) 양은 “우리 모두가 정치인이다”라는 말이 인상 깊었다”며 “정치를 어렵거나 고차원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시민의식과 공공의식을 함양해 내가 정치인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사회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겠다고 다짐했다”는 소감을 전했다.

축제에서 심리상담부터 취업상담까지?

공대 학생회, ‘커리어 데이’ 열어

강규연 기자 jennifer024@khu.ac.kr

【국제】 ‘커리어 데이(Career Day)’ 행사가 지난달 28일 공과대학 학생회 주최로 열렸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에게 직업 상담과 적성분석 등 실질적으로 취업에 도움이 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행사가 진행되는 이틀간 윤은서 전문 취업컨설턴트와 이희수 전문취업컨설턴트가 ‘산업과 직무의 이해’, ‘취업 성공을 위한 역량 찾기’ 등의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또한 공과대학 앞 잔디밭에서는 적성검사, 심리상담 등의 자기 이해 상담이 실시됐으며, 자기소개서 쓰기, 경험정리기법, 스토리와 역량 표현 등의 주제로 팀 상담도 이뤄졌다. 행사에 참여한 허우정(정보전자신소재공학 2010) 군은 “상담을 받아보니 생각지도

못했던 취업 준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고, 적성검사를 통해서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처럼 여러 학생들이 상담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특강의 경우 학생들의 반응이 엇갈렸다. 행사 첫 날 특강을 들은 한 학생은 “특강에서 R-JHA라는 역량체크 프로그램을 알게 돼 좋았지만, 참여도가 저조해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침체됐다”고 말했다. 신현철(전자정보 신소재공학 2009) 군은 “생각했던 것과 내용이 달라서 실망했지만, 특강 후에 강사께 추가로 질문을 해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공과대학 학생회 조현권(건축공학 2009) 회장은 “준비기간이 짧아 아쉬운 점이 많았지만, 앞으로도 구성원과의 소통을 통해서 이런 자리가 더 많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14 하계 현장연수 모집 및 예정 기업 안내

2014 하계 현장연수를 실시할 기업을 안내합니다. 관심 있으신 학생 여러분들은 기업체를 살펴봐 주시고, 현장연수 공고가 뜨는 대로 job@khu.ac.kr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기간 : 2014년 7월 1일(화)~2014년 8월 29일(금) 총 4주 이상
2. 대상 : 경희대학교 재적대학생(기초학부 이상 290명) / 출연생 가능(2013.8월, 2014.2월 출연자)
3. 실습 지원금 : 지원 기업별 지원금(기초학부 1인당 10만원, 지원금 없는 경우도 有) + 서울캠퍼스 재적생·재학생+휴학생, 학교 지원 월 20만원 예정현장연수 보험 별도지원
4. 근무기간 : 8시간/일, 40시간/주, 4주 연속 근무(160시간 이상 현장연수 수령해야 함)
5. 2014 하계 현장연수 실시 예정 기업 안내 : <http://job1.khu.ac.kr/choseung>

2014년도 국제캠퍼스 대학직장예비군 기본훈련 안내

2014년도 국제캠퍼스 예비군 기본훈련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대상자는 훈련에 적극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1. 개요
 - 가. 훈련대상 : 본교 국제캠퍼스 대학직장예비군에 편성된 예비군 자원 중 1~6년차 예비군 전원
 - 나. 훈련장소 : 제172대 3대예비군 훈련장(용인시 운현동 소재)

다. 훈련일시 : 대학과별 훈련 일정

훈련일자	훈련 대상 학과	시간
6월 9일(화)	▶ 전자정보대학 : 전자전공화학, 생체의학과	
6월 10일(수)	▶ 전자정보대학 : 컴퓨터공학, 전자정보화학, 전자정보화학, 사회기본학과	
6월 11일(목)	▶ 공과대학 : 화학공학, 정보전자신소재공학, 환경기반시스템공학, 신입경공학과	09:00 ~ 18:00
6월 12일(금)	▶ 공과대학 : 기계학과, 원자력공학	
6월 13일(토)	▶ 청脆대학 : ▶ 국제대학 / 국제·경영대학	
6월 14일(일)	▶ 세종대학 ▶ 특수대학원 ▶ 고직원	
6월 23일(월)	▶ 일반 / 전문 / 특수 대학원	

※ 6.4 전국도시기본설계 예비군 훈련기간 : 5. 22 ~ 6. 4

※ 개인별 대상자 명부는 훈련 2주전에 대학별 학과 행정실 및 학교 홈페이지 일반 공지사항에서 확인

2. 준비물

- 가. 예비군 복장(전투복, 전투화, 오락복)
- 나. 훈련장에서 규정대로 미착용 시 징계

※ 특히 전투화 미착용 시 입소 절차 불가

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학생증, 여권) 필히 치첨할 것(미 치첨자는 충기 지급 불가)

3. 교통 안내

- 가. 학교자원 차량(임대 버스)을 지하철 2호선 강남역 및 국제캠퍼스 정문 앞 2곳에서 운용할 예정임

1) 강남역 ~ 강남역 7번출구 200m전방 우리은행 365코너 앞에서 07:30 출발

2) 국제캠퍼스 ~ 학교 정문에서 07:50 출발

나. 개인별로 입소할 예비군은 학교 홈페이지에 훈련안내문에 공지된 훈련장 요도를 참고하기 바람

4. 유의 사항

- 가. 대상자 명단에 누락된 예비군은 임의로 훈련에 참가할 수 없으므로 연대부분에 확인 후 훈련에 참가하여야 한다
- 나. 개인별로 입소할 예비군은 학교 홈페이지에 훈련안내문에 공지된 훈련장 요도를 참고하기 바람

5. 기타

- 가. 훈련일자 및 훈련장소는 입소 불가(기기조작이나 시장을 염수할 것) 06:50까지 부대 위병소 도착)
- 나. 교육훈련 소집통지는 흥보미대학본부 게시판, 대학주보, 대학방송, 학과 홈페이지(국내 최초 세계 최대의 실내 테마파크) (국내 가장자)
- 다. 교육훈련 흥보미대학본부 게시판, 대학주보, 대학방송, 학과 홈페이지(국내 최초 세계 최대의 실내 테마파크) (국내 가장자)
- 마. 교육훈련 소집통지는 흥보미대학본부 게시판, 대학주보, 대학방송, 학과 홈페이지(국내 최초 세계 최대의 실내 테마파크) (국내 가장자)
- 바. 기타 훈련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 연대부본부 전화 031-201-3265~9)에 문의하기 바람

‘취업·진로 준비!! 취업진로지원처와 함께 하세요’

6월 첫째 주(6. 2~6. 6) 취업진로 프로그램 안내

1. 캠퍼스리플팅/기체 체육설명회 및 면담

행사 명	모집부분	일 시	장 소
PCA생 viên 채용면담	SEP	6. 2(월) 11:00~17:00	청운관 1층 상담실

※ 위 일정은 기업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참가방법 : 경희대학교 재학 학생 및 출연생 누구나 신청서면접 없이 참석 가능(시작 시간 5분전까지 청록)

◆ 기타 사항은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취업봉사 카페를 참고해 주십시오.

◆ 채용설명회 관련 출연조전 현금 : 각 채용설명회 종료 후 현장설명장에 입구에서 발급, 배부

2. 특강

행사 명	특강 진행자	일 시	장 소
면접 2회(4차)	이희성 격려원 교수	6. 2(월) 11:30~13:20	네오관 103호

※ 위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참가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연수신청 후 별도의 승인 양식 없이 참석

◆ 기타 사항은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취업봉사 카페를 참고해 주십시오.

◆ 채용설명회 관련 출연조전 현금 : 출연조전 현금으로 출연자에게 흥보미대학에서 받을 수 있음

3. 1회 취업진로지도 및 출증 컨설팅 (취업상담)

◆ 대상 : 경희대학교 학부 재학생, 출연생

◆ 상담 내용 :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작성법, 면접 질문지, 기업 및 직무 분석법, 로스쿨 진학 등